



우리나라의 목재수급 동향과 전망

주 린 원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장

지난 5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연구동 준공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여기에 실습니다 편집실

1. 서 론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합판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원목뿐만 아니라 합판을 포함한 거의 모든 목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해방이후의 혼란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이 극도로 황폐해 졌고 따라서 국내 산림자원이 빈약했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발전에 의해 증가하는 목재의 국내소비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의 열대재수출국들의 원목수출 규제, UN환경개발회의 이후 천연림 벌채 감축에 대한 압력, 인공림으로부터의 생산물량 확대로 새롭게 부상한 신생 수출국 등 수입을 둘러싼 수입 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목재수급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글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목재수급구조의 변화추세와 그 특징을 검토하며 금후 우리나라 목재의 수급 추세를 산림청이 제시한 전망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산재 생산의 장애요인을 검토하여 금후 국산재의 생산 증대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2. 목재수급 추이

원목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총 목재소비량은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건축 및 가구산업의 발달로 1970년 3.5백만m³에서 2002년 29백만m³로 연평균 6.8%씩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은 합판수출의 감소 때문에 1970년 1,9백만m³에서 2002년 0.1백만m³로 크게 감소되었다.

날로 증가하는 목재의 국내소비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되었으며 국내소비의 증가와 함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목재수출국들이 원목수출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수출로 수출정책을 바꾸고 이를 위해 원목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여 제품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 제품수입이 원목수입을 초과하여 현재에는 제품형태의 수입이 원목형태의 수입보다 물량으로 2배 이상이 되고 있다.

한편 국산재 생산은 1990년대 후반까지 1.0~1.2백만m³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5~1.6백만m³로 증가되었다. 이는 환율상승에 의한 원목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국산재의 수요 증가와 재생보드류 산업에 의한 국산재 수요 증가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국산재 생산증가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목재자급율은 국내 목재소비 증가에 비해 국내생산의 상대적인 부진 때문에 1970년 24%에서 현재에는 5~6% 정도로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표 1> 총목재수급 추이(천 m³)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국내생산	845	1,013	1,138	1,592	1,533	1,605	
수입	계	4,510	7,916	16,139	26,378	24,710	27,442
	원목	3,891	6,076	8,682	6,735	7,303	7,707
	제품	619	1,840	7,457	19,643	17,407	19,735
수출	계	1,864	2,230	415	430	171	105
	원목	0	0	0	0	0	0
	제품	1,864	2,230	415	430	171	105
국내소비	3,491	6,699	16,861	27,524	26,072	28,942	

주 : 원목환산량으로 종이와 판지 등의 순수입량은 포함하지 않았음.



3.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특징

3.1 원 목

최근 30년간 원목소비량은 1970년 4백만^m에서 1979년 약 10백만^m로 크게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열대수출국들의 원목수출 규제로 감소되었다가 국내 경제성장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였고 1997년의 외환위기 때 급감한 후 다시 회복하여 2002년 현재에는 9.4백만^m의 원목을 소비하고 있다.

국산재의 공급은 별채가능한 산림자원의 부족과 높은 생산비용으로 전체 원목 소비량에 접하는 비율은 정체 내지 감소되었고, 따라서 증가하는 원목소비량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의 수입된 원목으로 충당하였다.

<표 2> 원목의 수급추이(천^m)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생산량	침엽수	813	955	921	1,014	896	1,204
	활엽수	32	58	217	578	637	401
	계	845	1,013	1,138	1,592	1,533	1,605
수입량	침엽수	486	1,520	4,559	5,804	6,340	7,097
	활엽수	3,405	4,556	4,123	933	781	657
	계	3,891	6,076	8,682	6,737	7,121	7,754
수출량	침엽수	0	0	0	0	0	0
	활엽수	0	0	0	0	0	0
	계	0	0	0	0	0	0
소비량	침엽수	1,299	2,475	5,480	6,818	7,236	8,301
	활엽수	3,437	4,614	4,340	1,511	1,418	1,058
	계	4,736	7,089	9,820	8,329	8,654	9,359

주 : 침활구분은 임업연구원의 추정치임.

자료 : 산림청

과거 30년간 우리나라 원목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활엽수원목의 소비가 감소하고 침엽수원목의 소비가 급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부터 인도네시아의 합판산업 육성을 위한 원목수출 규제와 말레이시아의 제재산업 육성을 위한 원목수출 감소로 활엽수원목의 수입이 점차 어려워졌고 이와 함께 열대림보호문제 등이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활엽수원목의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합판산업이 복합합판생산체계로 전환하면서 침엽수원목 소비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원목소비의 또 다른 특징은 총 목재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목소비 수준이 1970년대 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목재수출국들이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수출을 위해 원목수출을 규제하자 국내의 총 목재소비의 증가를 합판 및 재생보드류 등의 제품수입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산재는 2002년 1.6백만^m가 생산되어 197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되었으나 원목소비량에 대한 국산재의 점유비율은 1970년 17%에서 2002년 13%로 감소되었다. 국산재 생산을 수종별로 보면, 물량으로는 침엽수원목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나 국산재 생산량에 대한 침엽수원목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되었다.

용도별로는 1980년대 후반까지 갱목용 원목이 전체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재용 및 재생보드류용 원목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원목수입은 국내 원목소비 추세에 따라 등락을 같이 해왔으나 재질과 수입선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수입 열대활엽수원목의 경우에는 라왕류의 수입에서 카폴, 케루잉 및 MLH(활잡목) 수종 등으로 변화되었다. 수입 침엽수원목의 경우에는 북미의 더글라스피와 햄록에서 라디아타소나무 및 소련산 가문비나무로 변화되었다. 전체 수입물량에 대한 활엽수원목의 점유율은 1970년 88%에서, 1980년 75%, 1990년 47%, 2000년 14%, 2002년 8%로 크게 감소되었다.



열대활엽수원목과 북미산 침엽수원목의 수입이 감소된 데 반해 뉴질랜드와 칠레로부터의 라디아타소나무원목의 수입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라디아타소나무원목이 1980년 전체 수입물량의 약 8%를 점유하던 것이 현재에는 약 60%를 점유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3.2 목제품

제재목은 건축 및 토목산업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내소비 수준은 국내 건축 및 토목산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32년 동안 제재목의 소비량은 연 평균 5.3%씩 증가하였다. 증가된 침엽수제재목의 소비는 주로 국내생산 제재목으로 충족되고 있으며, 수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활엽수제재목의 국내소비는 점차 감소추세이며, 1980년대까지는 활엽수원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요를 충족하였으나 활엽수원목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활엽수제재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2002년에는 활엽수제재목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수입제재목으로 공급하고 있다.

제재목의 생산량은 1970년에서 1978년까지 연평균 14.1%씩 증가하다가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약 3.0백만 m^3 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약 4백만 m^3 의 생산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때 약 2백만 m^3 으로 감소된 후 현재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5.0백만 m^3 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활엽수원목의 수입 감소로 활엽수제재목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된 반면 침엽수제재목의 생산은 1970년 0.6백만 m^3 에서 2002년 5.0백만 m^3 으로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다.

제재목의 수입량은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지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1970년대말 약 30천 m^3 에 불과하던 제재목 수입량은 2002년 752천 m^3 으로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여 2002년 국내 제재목시장에 대한 점유

율이 약 13%에 달하고 있다. 활엽수제재목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침엽수제재목은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표 3> 제재목의 수급추이(천 m³)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생산량	침엽수	642	1,570	2,884	3,673	4,678	5,034
	활엽수	506	1,407	1,013	511	458	244
	계	1,148	2,977	3,897	4,184	5,136	5,278
수입량	침엽수	0	7	83	140	233	304
	활엽수	0	18	628	286	456	448
	계	0	25	711	426	689	752
수출량	침엽수	0	358	191	11	11	9
	활엽수	6	18	7	6	8	5
	계	6	376	198	17	19	14
소비량	침엽수	642	1,219	2,776	3,802	4,900	5,329
	활엽수	500	1,407	1,634	791	906	687
	계	1,142	2,626	4,410	4,593	5,806	6,016

주 : 수출입량은 관세청자료, 침활구분과 생산량은 임업연구원의 추정치임.

합판의 국내소비는 1970년 12천m³에서 2002년 2,118천m³으로 연평균 17.5%씩 증가하였다. 1980년대말 건축 및 가구산업의 호황으로 합판의 국내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1988년부터는 국내생산량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합판의 수출은 1970년 1,055천m³에서 1977년 1,718천m³로 증가한 후 감소되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 초부터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수출물량은 2002년 현재 46천m³에 불과하다.

합판의 국내생산은 1970년 1,067천m³에서 2002년 824천m³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연간 평균 합판생산량은 1,805천m³이었으며 양질의 열대재를 가공한



박판을 주로 생산하여 그 대부분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1978년 2,557천m³의 생산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칩엽수복합합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건축·토목용 콘크리트판넬용인 두께 12mm의 보통합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의 시장 점유율은 약 40% 정도이다. 합판은 1970년대말 3천m³ 정도가 수입되었는데 2002년 현재에는 1,340천m³을 수입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합판수입이 국내합판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합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박판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2개국이 전체 합판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합판의 수급추이(천m³)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생산량	1,067	1,575	1,124	747	736	824
수입량	0	23	735	980	1,095	1,340
수출량	1,055	953	76	93	70	46
소비량	12	645	1,783	1,634	1,761	2,118

자료 : 산림청

재생보드류는 내장재산업과 가구산업의 발달에 의해 그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PB(파티클보드)의 경우에는 1970년 13천m³에서 2002년 1,726천m³으로, MDF(중밀도섬유판)의 경우는 1970년 15m³에서 2002년 1,985천m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수리 및 리모델링산업의 발달과 펜션 하우스의 건축붐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PB와 MDF의 국내 생산도 수요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PB는 1970년 16천m³에서 2002년 728천m³로, MDF는 15천m³에서 1,229천m³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증가는 국내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PB의 수입량은 1979년 5천m³에서 2002년 현재에는 2000천m³로

증가하였고 전체 소비량의 약 77%를 점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인도네시아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벨기에와 태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벨기에, 태국,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PB가 전체 수입량의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한편 MDF의 수입도 1982년 1천m³에서 2002년 53천m³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PB에 비해 수입 MDF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정도이다. MDF는 주로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4개국이 전체 수입물량의 과반을 점하고 있다.

<표 5> PB의 수급추이(천 m³)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생산량	16	68	165	722	723	728
수입량	0	3	460	485	595	1,000
수출량	3	28	0	4	3	2
소비량	13	43	625	1,203	1,315	1,726

자료 : 산림청

<표 6> MDF의 수급추이(천 m³)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생산량	15	14	113	931	1,009	1,229
수입량	0	0	82	380	491	807
수출량	0	0	7	99	80	51
소비량	15	14	188	1,212	1,420	1,985

자료 : 산림청

4. 목재수급 전망

산림청이 예측한 총 목재 수급전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목재소비량은 2002년 현재 29백만m³에서 매년 0.7%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42백만m³



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은 약 1.6백만m³로 총 목재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후 국내 산림축적이 증가되고 산림의 상당부분이 벌채가 가능한 임령에 도달함에 따라 2050년에는 총 목재수요량의 약 30%인 12.7백만m³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50년에도 총 목재수요량의 약 70%는 해외로부터 수입된 목재에 의존해야 하며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고부가가치 임산물 수출정책 때문에 원목보다는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7> 총 목재수급 장기 전망(천 m³)

구 분		2002	2010	2020	2030	2040	2050	
국 내 수 요		29,047	30,746	35,348	38,559	40,351	42,043	
공 급	국 산 재	1,605	3,234	4,635	6,844	9,486	12,754	
	수 입 재	소 계	27,442	27,512	30,713	31,715	30,865	29,289
		원 목	7,707	7,847	7,232	5,906	4,213	1,252
		제 품	19,735	19,665	23,481	25,809	26,652	28,037
자급율(%)		5.5	10.5	13.1	17.7	23.4	30.3	

자료 : 산림청. 1997. 제4차 산림기본계획.

이러한 산림청의 수요 전망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지만 전 세계 목재수요가 인구의 증가 및 경제발전으로 매년 1%씩 증가할 것이라는 미국이나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감안할 때 너무 높지도 또는 너무 낮지도 않은 추정치라 판단된다.

한편 국산재 공급에 대한 전망은 연간 벌채량을 연간 임목생장량으로 나눈 비율(이를 벌채율이라 정의하고 있음)을 가지고 추정하였는데 1995년 현재 8.7%에서 2050년에 66.3%로 벌채율이 계속 증가되리란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

한편 수입물량은 전체 총 목재수요량에서 국산재 공급량을 단순히 감하여

추정하였다. 앞으로 국산재 공급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전량 국산재로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목재수입에 계속 의존해야 할 것이고 수입량의 수준은 국산재의 생산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로 환태평양시장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환태평양시장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중국이다.

수입국 중에서 특히 중국이 경제발전과 서부지역발전계획, 2008년의 올림픽 게임 유치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건설 사업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목재의 자국 소비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록 대규모 인공림조성 계획에 의해 자국으로부터의 생산 잠재력이 향상된다 하여도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으로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2025년에는 많게는 50백만m³, 적게는 35백만m³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2년 현재 생산수준인 16백만m³의 2~3배 수준까지 생산을 확대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아시아지역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금후 이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목재생산 및 수출잠재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목재의 상당부분을 이들 나라로부터 계속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국산재의 공급증대 가능성 평가

우리나라는 6.5백만ha가 산림면적이며 토지면적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면적 중 약 30%가 낙엽송, 리기나, 잣나무 등의 인공림이며 나머지는 소나무, 참나무 등의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은 국가, 개인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림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1970년 69백만m³에서 2002년 현재 448백만m³로 크게 증가되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자원의 연간 순생장량은 20백만 m^3 로 연간 목재 생산량 1.5백만 m^3 의 약 13배, 연간 총 목재소비량 29백만 m^3 의 약 7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림이 30년생 이하의 유령림으로 미성숙림이다.

현재의 영급구조로 볼 때, 금세기 중반에는 대부분의 산림이 벌채가능임령에 도달할 것이며 이러한 산림자원의 영급구조 변화를 근거로 국산재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산림청(1997)에 의한 국산재공급에 대한 전망치가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산재생산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성숙림의 부족만이 국산재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산재의 생산량은 외환위기 이후에 1.6백만 m^3 로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1.0백만 m^3 ~1.2백만 m^3 의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50년생 이상의 임목축적량은 1980년 2.8백만 m^3 에서 2002년 17.2백만 m^3 로 약 6배 증가되어 50년생 이상의 임목축적량에 대한 국산재생산 비율은 1980년에 37%에서 2002년 9%로 계속 감소되었다. 따라서 50년생 이상의 벌채가 가능한 축적량이 증가된다고 하여 다시 말해 성숙목 축적이 증가된다고 해서 국산재 생산이 비례적으로 단순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과거 30년간의 실질노임이 8배나 증가되었다. 노동집약산업인 임업부문에 있어서의 노임상승은 이렇다 할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병행하지 못함에 따라 목재생산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동시에 임업노동자의 임금상승율이 제조업의 임금상승율보다 낮아 타산업에 비해 작업여건이 열악한 산림작업에 있어서 임업노동자의 고용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우리나라 임업에 있어서 지형조건과 소유구조가 임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우리나라가 6.5백만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산림이 급경사이고 시장까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산림면적이 경제적으로 목재생산이 가능한 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최근까지 경사가 완만한 산지는 주거용이나 산업용 토지 및 농업용 토지로 전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골프 및 스키 등 레저스포츠용으로의 전용이 증가

되고 있다. 또한 사유림소유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소유면적 또한 매우 영세하여 산림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규모가 2.2ha이다. 따라서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어렵고, 규모의 경제 달성도 어려워 임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목재생산을 주로 담당할 생산임지의 대부분이 인공림이며, 많은 육림비용이 소요된다는 것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임업에 있어 노임의 급격한 상승은 임업투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임업에의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숙기에 도달한 목재를 벌채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숙련된 벌채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타 산업의 노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였고, 타산업의 노임상승에 반응하여 농산촌 노동력이 최근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이 추세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감소되는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노동력의 확보 여부가 국산재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천연림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와 참나무이며, 이 두 수종이 전체 국산재 생산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인공림으로부터는 낙엽송 원목이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국내생산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소비량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산재는 주로 갯목, 펄프 및 보드류용 원목 등 낮은 부가가치재로 이용되고 있다. 건축용재 및 목가공용 원자재는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수입재와 경쟁할 수 있는 대경재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의 목재소비처가 요구하는 양질의 대경재를 생산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집약적인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인공림과 천연보육림으로 구성되는 경제림을 신규조림과 재조림 및 우량 천연림의 보육을 통해 2050년까지 약 3.5백만ha로 확대하여 국산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우량 대경재의 생산을 위한 집약적인 육



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목재소비 동향을 고려할 때 금후 수입재를 대체하기 위한 우량 대경재 생산을 위해서는 무육단계에 있는 경제림의 집약적인 육림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육림사업의 대부분이 정부보조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양질 대경재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보조 육림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여부 또한 국산재 공급잠재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의 보조지원에 의한 산림사업의 실시로 황폐산림이 복구되었고, 또한 녹화된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제고를 위한 육림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림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바뀌어 산림이 제공하는 환경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목재 이외의 산림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산재의 자급을 제고와 증가하는 산림의 환경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 충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산재 생산을 위한 정부의 산림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국산재의 공급 잠재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주요인자라 할 수 있다.

6. 결 론

우리나라의 목재수요는 경제발전으로 크게 증가하여 1970년 약 3.5백만^m에서 2002년 28.9백만^m로 약 8배 증가하였다. 증가하는 목재수요는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 목재로 충족하였는데 수입여건의 변화로 수입구조가 과거 30년간 크게 변화되었다. 즉, 원목수입은 열대수출국의 수출규제와 라디아타소나무 인공림을 보유한 뉴질랜드와 칠레 등의 수출증가로 활엽수에서 침엽수로

변화되었다. 또한 산림자원 보유국들의 부가가치제 국내생산 수출정책으로 원목수입보다 제품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 목재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해 매년 0.7%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42백만m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목재생산도 성숙림 축적의 증가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 전체 목재수요의 약 3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재의 생산 증대는 산림축적의 증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임업노동력의 확보 여부가 국내 산림자원의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우리나라 임업이 직면할 문제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임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임업부문의 노임상승이 목재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목재생산의 수익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농산촌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는 앞으로 숙련된 임업노동력의 심각한 부족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 결과 노동이 국산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고 노동생산성에 있어 획기적인 향상을 이룰 수 없다면 미래에도 수입재에 비해 국산재 목재가격이 비싸 국산재의 공급을 제한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임업은 보조산업으로 산림자원의 육성과 국산재의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 국산재 생산을 위한 보조지원의 유지 및 확대여부도 또한 국산재의 공급 잠재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자가 될 것이다.